

한중 번역뉴스의 프레임(Frame) 전환에 관한 연구*

— 『參考消息』의 뉴스텍스트 분석을 중심으로

강수정**

<目 次>

1. 서론: 뉴스번역에의 접근
2. 뉴스번역의 방법과 프레임
3. 뉴스번역 프레임의 재구성
4. 『참고소식』 번역뉴스 분석
 - 1) 연구방법과 텍스트 분류
 - 2) 텍스트 분석
5. 결론

1. 서론: 뉴스번역에의 접근

뉴스를 번역한다는 것은 원작을 읽고 느끼는 독자의 감동을 번역문 독자들에게 똑같이 전달하도록 하는 문학번역이나, 원문의 실용적인 요구가 번역문에서 동일하게 드러나야 하는 기술번역과는 아주 다른 번역이다. 우선 뉴스번역은 뉴스 쓰기에 적합해야 하는데, 이는 형식적으로 자유로운 글쓰기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뉴스텍스트는 매체가 보도하는 관행적 문장구조에 적합해야하고, 헤드라인-리드-본문으로 구성되는 역피라미드 형태의 문장구조¹⁾가 선호된다. 또한 뉴

* 본 연구는 숙명여자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과제번호 1-1503-0003).

** 숙명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부 조교수

1) 중요한 핵심이 서두에 요약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사실과 흥미 있는 사실을 보충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기술하는 형태로 이는 독자들이 기사전체를 읽지 않고 리드만 읽고서도 전체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스번역에 기초가 되는 국제뉴스는 대개 개인의 집필이 아닌 번역자-기자-에디터가 상호작용하는 조직의 집단적 의사결정 및 책임성과 연계된 작업이다. 이러한 뉴스번역의 과정을 '집합적 원저자성의 원칙'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원저자가 한 명의 개인이 아니고 그 책임도 개인이 아닌 조직에 있다는 것이다.²⁾ 뉴스번역의 여러 특징 중에 가장 주목되는 것은 매체의 방송시간 혹은 지면상의 제약으로 인해 원문기사가 직역되는 경우가 거의 드물다는데 있다. 뉴스가 수용자들에게 소비되고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목표언어권 독자들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재구성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크던 작던 원문에 대한 변형이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뉴스번역의 많은 연구들이 이러한 원문에 대한 조정에 주목하여 그 현상을 설명하는데 많은 논의가 집중되고 있다.

원문이 변화하는 뉴스번역의 특징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방식으로는 뉴스가 존재하는 텍스트의 기능적 특성에 기반하여 정보(information)전달 텍스트로 분류,³⁾ 원문의 객관적 사실이 목표언어권 독자에게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산문체로 번역할 것을 주장하는 텍스트 유형에 따른 접근이 있다. 이는 텍스트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목적으로 읽히기 위한 기능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접근이고, 뉴스텍스트의 경우 정보전달 기능을 중요하게 본 것이다. 그러나 다매체 환경의 현대적 뉴스 텍스트는 단순정보전달만이 아닌, 호소적·표현적 텍스트들도 많아서 텍스트를 단순히 삼분법적으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이 현재의 국제뉴스 흐름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⁴⁾이 있다. 특히 중국의 번역뉴스 연구들은 뉴스번역물이 자국 내에서 얼마나 수용 가능한 형태로 기능하는가 하는 뉴스자체의 목적(Skopos)⁵⁾성을 강조하며 원문뉴스의 내용과 형식을 편집하는 행위로 기

2) Bielsa, Esperanca and Susan Bassnett, 노승엽 외 역, 『글로벌 뉴스와 번역』, 서울, 도서출판 동인, 2009년, 116쪽.

3) Katharina Reiss & Hans J Vermeer, 정혜연 역, 『일반 통번역이론의 기초』,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10. 이들은 번역텍스트의 유형을 정보적(information), 표현적(expressive), 작용적(operative) 텍스트로 분류하고 각 유형의 기능적 특징에 따라 번역 방법을 달리 할 것을 제안하며, 뉴스는 정보적 텍스트로 규정했다.

4) 陳明瑤, 「淺論英語新聞編譯加工」, 『中國翻譯』 22(5), 2001, 33쪽

5) 스키포스(Skopos)는 그리스어로 '목적'을 의미하는 단어로, 원문과 번역어가 동일한 등가가 어려우므로 이분법적인 언어등가가 아닌, 텍스트가 동일한 기능을 하도록 동일한 효과

능주의적 편역(編譯)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중국뉴스는 간결한 보도문을 지향하지만 외국의 매체들은 상대적으로 풍부하고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장 길이의 차이로 정보 불일치가 심하다는 것과 영미권 통신사의 패권적 시각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을 근거⁶⁾로 들고 있다.

이에 대해 강수정(2013)은 중국의 이해와 크게 연관이 없는 경제·사회·문화 분야의 연성뉴스(soft news)의 경우 기능주의적 편역이 이루어졌으나 중국의 이해와 상충되는 외교나 정치 분야의 뉴스는 원문을 다양하게 편집하는 방식으로 번역이 아닌 제작뉴스로 전환이 된다⁷⁾고 하였고, 최운규와 최용준(2013) 역시 한국관련 보도에서 중국 언론들이 자국에 유리한 정보는 확대하고 불리한 정보는 축소함으로써 자국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경향이 있다고⁸⁾ 보고하고 있다. 결국 중국매체들의 자국 내 수용정도를 높이기 위한 기능주의적 편역은 소위 국가적 가치가 배제된 연성뉴스(soft news)에서만 부분적으로 설명이 된다는 것이며 국가의 정치적 이해와 결합된 뉴스(hard news)에서는 텍스트에 한정된 번역학적 접근으로는 설명이 어렵게 된다. 다시 말해 가치중립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번역행위가 뉴스라는 저널리즘적 행위와 결합되면서 가치지향적 편집행위로 전환되고, 뉴스를 번역하는 행위를 규정하는 것에 텍스트를 넘어서 좀 더 복잡하고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번역행위를 텍스트 전환의 차원을 넘어서 설명하기 위해서는 번역되는 텍스트가 번역자 자신의 개별적인 번역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조직이나 제도화된 맥락 안에서 어떠한 상호관계 속에서 번역을 수행하는지를 검토하는 제도론적 접근⁹⁾이나, 뉴스의 내용적 특징을 결정하는 정치·사회적 구조적 결정요인인 이데올로기에 초점을 맞춘 접근¹⁰⁾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텍스트를 넘어서는 층위에서 뉴스번역을 설명한다는 것은, 번역의 커뮤니케이션적 속성보다는 뉴스가 만들어

의 등가 개념을 추구한다.

6) 吕宁, 「新闻编译中的“选择”—以《参考消息》的一篇报道为例」『新闻记者』, 2006(10), 58쪽

7) 강수정, 「방송뉴스 번역 양상에 관한 연구」, 『통번역학연구』 17권 1호, 2013, 21-22쪽.

8) 최운규·최용준, 「중국 3대 언론매체의 한국 관련 보도 행태 연구」, 『언론과 사회』 제21권 2호, 2013, 126쪽.

9) 강지혜, 「번역에 대한 제도적 관점의 중요성 고찰」, 『번역학연구』 제13권 5호, 2012.

10) 蒋晓华, 「意识形态对翻译的影响: 阐发与新思考」『中国翻译』 24(3), 2003, 24-29쪽.

지는 정치적·공간적 제약이 부각되는 저널리즘적 측면에 좀 더 가까워 보이고, 언어적 전환과 어휘 변화의 구체적인 방법과 그 효과보다 이데올로기나 조직의 문제에 대한 선언적인 측면만이 강조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뉴스번역에 대한 텍스트 중심적 접근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번역뉴스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텍스트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설명 가능한 개념과 접근방법을 찾고자한다. 특히 원문뉴스가 번역되는 수위와 폭에 따라 그 접근과 해석이 다를 수 있는바, 텍스트의 변화와 연관한 원문의 조정 양상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2. 뉴스번역 방법과 프레임(Frame)

본 연구는 우선적으로 중국매체에서 일어나는 번역현상에 관심의 초점을 두고 그 매체들이 뉴스를 번역하는 방법을 파악하고자 한다. 중국매체들은 뉴스번역을 대개 번역형식에 따라 전역(全譯), 요약번역(摘譯), 편역(編譯)의 3종류로 나누고 있는데, 이들 방법은 그 필요에 따라 주로 데스크에 의해 결정되거나, '집합적 원저자성의 원칙'을 따르게 된다. 중국일보(中國日報, China Daily)출신의 류치중(柳其中)교수는 『중영뉴스편역(漢英新聞編譯)』에서 외국 통신사들의 영문뉴스는 길이가 긴 반면 중국의 뉴스들은 길이가 짧은 편이라는 편집상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외신이 중국 내에 다시 한 번 전달될 만한 가치인 2차 커뮤니케이션 가치를 기준으로 번역의 형식을 결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¹¹⁾

원문뉴스 전체를 중국뉴스로 전환하는 번역방법인 전역(全譯)의 경우 2차 커뮤니케이션의 가치가 높고 보도문의 길이도 짧은 경우에 많이 이루어진다. 이 뉴스들은 단락과 어휘를 그대로 유지한 채 번역되는데, 류치중은 전역을 할 때에는 원문의 문체까지 그대로 살릴 것과 번역사의 개입을 최소로 할 것을 요구한다.¹²⁾

요약번역(摘譯)은 2차 커뮤니케이션의 가치는 높지만 부분적으로 필요 없는 내

11) 류치중(劉其中), 『新聞翻譯教程』, 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04, 5쪽.

12) 류치중, 위의 책, 6쪽.

용들이 많을 경우, 그리고 지면이나 시간에 제약이 있을 경우 중요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번역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중요한 부분에 대한 판단 여부는 매체별로 기준이 다를 수 있는데, 류치중은 요약번역의 경우 원문뉴스의 중심사상이나 뉴스의 구조와 스타일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¹³⁾

번역(編譯)은 편집의 수단을 통해 원문을 가공, 종합하여 표현하는 뉴스번역방법이다. 목표언어권 독자들의 읽기 습관에 적합하도록 편집 가공되는 관계로 독자들은 편역된 번역뉴스를 볼 때 보다 정제되고 집중적인 느낌을 받게 된다. 류치중은 전역의 상대되는 번역방식으로 편역을 언급하였는데, 편역은 매체들이 가장 선호하는 뉴스번역 방법이다. 서방 통신사의 번역과정을 연구한 비엘사와 바스넷(Bielsa & Bassnett)의 경우에도 오히려 직역이나 전역이 흔치 않으며,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소재를 재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임을 밝히고 있다¹⁴⁾.

이렇듯 편역의 과정은 원문의 재구성을 전제로 하지만, 류치중은 이 과정에서 원문뉴스에 대한 손상이 뉴스의 객관성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편역 과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편역된 뉴스가 원문뉴스의 편역임을 밝힐 것과 '본사'의 편집 방침에 부합되는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국가이미지에 손상을 입힌다는 식의 비판을 경계할 것을 주장하며, 좀 더 뉴스텍스트 구성에 초점을 맞춘 실무적 편역방법을 아래와 같이 제안¹⁵⁾하고 있다.

뉴스번역은 일반적 뉴스번역보다 자유의 폭이 크다. 그렇지만 원문의 뜻에 충실해야 함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지 필요에 따라 원문의 진의를 왜곡하거나 단장취의(斷章取義, 문장의 일부만 떼어 인용)해서는 안 되며 함부로 원문에 없는 실질적인 내용을 추가해서도 안 된다. 하지만 일부 배경자료를 추가해 독자의 이해를 돕는 것은 허락되며 때로는 반드시 필요하다. 직접인용 부분의 내용도 반드시 그대로 번역해야 하며 그 의미를 변경시켜서는 안 된다. 간접인용을 직접인용으로 바꾸어서도 안 된다. 다만, 문장 앞뒤 문맥에 따라 직접인용을 간접인용으로 바꿀 수는 있다.

13) 류치중, 위의 책, 6쪽.

14) 비엘사와 바스넷, 위의 책, 26쪽.

15) 류치중, 위의 책, 158쪽.

번역작업에서 원문뉴스의 객관성을 훼손하지 않으려는 류치중의 원문중심 접근은 번역자들에게 뉴스번역에서 원문의 소스를 어떻게 판단하여 취사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과 객관적 보도 사이에서 만족할 만한 균형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고민을 던져주었다. 또한, 언론인이 지켜야 할 객관적 보도의 자세를 번역뉴스에서 어떻게 견지할 것이며, 중국의 수용자들에게 '타자'인 외국의 소리를 객관적이고 진실되게 전달하여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평가를 받았다. 반면에 청웨이(程緯)¹⁶⁾를 비롯한 중국의 연구자들은 뉴스번역에 대한 류치중의 원문중심의 접근방식은 번역이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즉 문화 간의 넘기 힘든 차이나 뉴스 쓰기 방식의 결정적 차이와 직면했을 때, 번역사는 오히려 탄력적인 '자국화' 전략¹⁷⁾을 통해 텍스트가 수용자와 소통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서방 언론의 편향된 시각에 대해 문화 간 정보전달 과정에서 객관적인 원칙에 완전히 위배되지 않는 한 번역자가 일정한 발언권을 행사하여 원문뉴스의 틀을 재구성하여 뉴스보도의 프레임 변화까지 감수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사실 '번역'이라는 단어 그 자체에는 원문에 '충실'하기 위한 번역자의 책임에 대한 논쟁이 수세기 동안 계속되어온 역사가 있고,¹⁸⁾ 뉴스가 수용되는 과정에서 목표문화권과 소통을 위해 원문의 변형이 필수적이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논쟁은 뉴스번역의 본질적 과제이다. 뉴스번역은 번역적 행위와 뉴스라는 가치의 결합이어서 이 논쟁은 기본적으로 뉴스에 대한 개념적 차이에서 기인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 번역뉴스를 객관적 현실을 온전히 반영하는 객관화의 상징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미디어가 증개한 재 객관화된 현실로 볼 것인가? 하는 차이이다.

번역뉴스에 대한 개념적 차이는 대상이 되는 국제뉴스의 본질과도 관련이 있다. 언론학자들은 국제뉴스가 국가 간의 이해관계에 핵심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본다.¹⁹⁾ 더구나 국제뉴스를 통해 수용자인 국민들이 바깥 세상에 대한 정보를 접하

16) 청웨이(程緯), 「跨文化传播视阈下的新闻编译--以《参考消息》防控甲流的几则新闻稿为例」『上海翻译』2010(3), 上海, 上海市科技翻译学会, 2010, 27-32쪽.

17) 자국화 번역은 자신의 언어 및 문화적 기준에 맞추어 이국적 요소를 최소화하여 투명하고 유창하게 읽히게 하여 번역자가 드러나지 않는 '불가시성'의 번역을 의미한다.

18) 비엘사와 바스넷, 위의 책, 31쪽.

고 이미지를 형성하며, 그 인식과 태도의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체가 보여주는 국제뉴스의 현실이 수용자들이 실존하고 있는 그대로의 '객관적 현실'과는 다른, 국가의 이해가 반영된 매개된 현실(mediate reality)이라는 것이다. 이는 국제뉴스가 자국의 이해를 반영하기 때문에 동일한 이슈를 각국의 이해에 따라 상이한 시각으로 보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연구결과²⁰⁾로 확인할 수 있다.

특정한 대외뉴스가 국가이익에 부합하기 위해서 뉴스 안의 많은 정보들 가운데 기준에 합당한 정보들이 논리적 일관성을 갖도록 '선택적으로 채택되고' 나아가 '특정측면이 강조되거나 축소'되는 과정을 밟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특정한 대외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 독자들은 미디어가 제시하는 프레임(frame)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²¹⁾이다. 국내의 국제뉴스 연구들은 이러한 면에서 국제뉴스에서 언론의 프레임을 연구하는 것이 핵심적임을 언급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번역뉴스의 소스인 국제뉴스는 현실 그대로의 것이 아니라, 방송시간과 지면의 한계와 더불어 국가적 이익의 작용이라는 국제뉴스 환경의 특성에 따라 현실(reality)의 특정 측면을 부각 혹은 축소시켜 매체에 의해 '매개된 현실(mediated reality)'을 수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에 기반해, 본 연구는 원문의 뉴스가 번역뉴스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프레임의 변화는 국가적 이익에 따른 것임을 기본 전제로 한다. 따라서 한국의 뉴스원문이 중국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원문이 변형되는 것을 중국어권 독자들의 상황에 맞춘 프레임의 전환으로 본다면,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뉴스텍스트 번역의 어휘적, 문체적 변화는 원문인 한국뉴스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의 변화를 목적으로 한 것임을 가정할 수 있다. 즉 뉴스가 담고 있는 기본정보인 발생한 사건과 사실에 대한 팩트(Fact)가

19) 김성해·김경모, 「동아시아공동체와 언론: 동아시아 지역과 역내 금융협력에 대한 한·중·일 언론의 보도 비교」, 『언론과학연구』 제10권 1호, 부산, 한국지역언론학회, 2010. 최윤규·최용준, 「중국 3대 언론매체의 한국 관련 보도 행태 연구」, 『언론과 사회』 제21권 2호, 서울, 성곡언론문화재단, 2013. 참조.

20) 김성해·김경모(2013)의 연구는 한국의 경제위기에 대한 외신의 보도차이를 분석하면서 외신이 속한 국가의 대외정책 및 해당매체의 이념적 지향성을 그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는데, 결국 국가 간 언론보도의 차이가 국가이익에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이다.

21) 김성해·김경모, 위의 논문, 87쪽.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어휘, 문체 등에 변화를 주면서 기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프레임을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3. 뉴스편역 프레임의 재구성

‘프레임(Frame)’에 대한 정의는 학술적 접근에 따라 서로 다르지만,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는 로버트 엔트만(Robert M Entman)의 프레임 정의를 가장 널리 사용하는데²²⁾ ‘프레임을 설정하는 것’은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복잡한 사건들 중에 사실이라고 여겨지는 부분의 특정 측면을 선택하고 강조하여, 텍스트에서 그 부분이 보다 명확하게 다른 것들보다 두드러지게 만드는 것으로, 어떠한 문제에 대한 정의나 인과관계의 해석, 도덕적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수용자를 인도하는 것이다(Entman, 1993: 52; 程維, 2010: 27 재인용).²³⁾ 따라서 프레임은 미디어를 통해 나타나는 담론을 반영하는 해석적 틀이라는 의미인데, 수용자들은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이성적 추론을 거쳐 냉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기 보다는 파편적인 정보를 가지고 적은 인지적 노력을 투여하고도 최선의 결과를 얻기를 바라는데, 이때 수용자들의 해석에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프레임이다.²⁴⁾ 그리고 수용자는 특정 사건의 어떠한 측면을 선택하여 제시하는 선택성과 그것을 다른 것들보다 더 두드러지게 만드는 현저성이라는 특성을 통해 뉴스가 제시하는 프레임을 이해하게 된다.²⁵⁾

뉴스보도에서 프레임은 대개 취재, 편집, 구성 등의 과정 속에 숨겨져 있으며, 사건을 대하는 맥락과 관점에 따라 전체적인 뉴스의 이야기 전개방식을 다르게 구성할 수 있고 그 전개방식에 따라 뉴스프레임의 차이가 발생한다. 특히 국가이익과 연관된 국제문제에서 프레임은 보다 유용성을 갖는다고 연구²⁶⁾되고 있으며,

22) 청웨이, 위의 논문, 27쪽.

23) 청웨이, 위의 논문, 27쪽.

24) 이동훈·김원용, 『프레임은 어떻게 사회를 움직이는가』, 삼성경제연구소, 2012년, 35쪽.

25) 이준용, 『갈등적 사안에 대한 여론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프레임 모형 검증연구』, 『한국언론학보』 제49권 1호, 2005년, 138쪽.

일련의 사건들에 의미를 부여하는 중심개념으로 무엇이 문제이고 앞으로 어떠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지 등의 방향성과 같은 내용들이 프레임을 통해 제시되므로 국제뉴스에서 프레임은 가치중립적일 수가 없게 된다.

이준웅(2005)에 따르면, 뉴스 프레임 연구는 뉴스의 내용과 중요도가 수용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도 중요하지만 뉴스의 스토리를 구성하는 방식 그 자체가 수용자 의견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뉴스의 주제적 구성을 통해서, 그리고 뉴스 어휘의 사용, 강조와 생략, 은유와 직유 같은 수사적 장치, 시각적 양태의 정보제공 등의 방법의 도움을 얻어 문제가 되는 사태에 대한 전체적인 해석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뉴스 스토리는 내러티브(narrative)로, 번역뉴스에서 기사의 이데올로기적 방향성을 결정하는 틀이 프레임이고, 이야기의 구성과 전개가 내러티브이다.²⁷⁾ 모나베이커(Mona Baker)²⁸⁾는 프레임을 활용하면, 매체들이 원문 뉴스의 이야기인 내러티브적인 특성을 강화 혹은 약화시키는지, 사건의 재구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알 수 있다고 말한다. 즉 프레임은 텍스트 속에 내재된 스토리인 내러티브를 파악할 수 있게 하며, 내러티브의 특징이 구동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결국 번역뉴스를 이해하는 데에 프레임의 개념이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인데, 동시에 번역이 프레임을 구성하는 주요한 도구이기도 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뉴스번역 연구자들은 번역뉴스의 프레임과 내러티브에 관심을 가져왔다. 김기영(2013)은 이데올로기가 '역사적·사회적 입장을 반영한 사상과 의식의 체계'라면 사회적 내러티브(public narrative)는 '하나의 사건을 둘러싼 공유된 스토리인 동시에 미시적 이데올로기로 이해하여²⁹⁾, 한미FTA라는 갈등적 내러티브가 표제와 리드, 어휘변이를 일으키고 있음을 밝혔다. 김순미(2013)는 이해관계와 권력의

26) 김희범·우형진, 「한국과 일본신문의 '일본군 위안부' 보도프레임 유형 특성 연구」, 『미디어, 젠더 & 문화』 제31권 2호, 2016, 83쪽.

27) 송연석, 「이데올로기가 제도적 번역에 미치는 영향 연구」, 『번역학연구』 제12권 1호, 2011, 149쪽.

28) 程維, 위의 논문 27쪽에서 재인용.

29) 김기영, 「내러티브를 통해 살펴 본 국제뉴스 현지화 현상」, 『번역학연구』 제14권 2호, 2013, 40쪽.

역학이 텍스트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데올로기적 관점에서 프레임은 파악하고 텍스트의 스토리라 할 수 있는 내러티브의 변화를 확인하였다.³⁰⁾ 사실 국내 번역학에서 프레임에 관한 연구가 상당히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 연구들은 기본적으로 텍스트에 특정한 이데올로기가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프레임과 내러티브 연구를 활용해왔다. 즉 거시적 이데올로기가 텍스트에 일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이데올로기 결정론적인 차원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활용되었는데, 이는 프레임이 지니고 있는 상호작용적 의사소통의 힘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

로버트 엔트만(최수진 2014: 511 재인용)에 따르면, 프레임의 과정에는 크게 네 가지 커뮤니케이션적 요소가 관여하게 되는데, 커뮤니케이터, 텍스트, 수용자, 문화가 그것이다. 커뮤니케이터는 무엇을 말할지를 결정할 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프레임 과정을 거치게 되며, 텍스트는 그러한 프레임을 특정 단어와 문구를 포함하거나 배제함으로써 드러낸다. 문화는 이들 과정의 근간을 이루는 포괄적 의미이다.³¹⁾ 여기서 프레임의 형성은 유기적이고 상호교환적인 작업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수용자들이 뉴스텍스트에서 제시된 프레임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프레임이 사회적 관습과 맞고, 수용자 자신들의 개인적 인지 구조와 일치해야 수용이 가능하고, 그 수용 의사들이 모여 다시 문화를 형성한다. 이때에 수용자는 이 텍스트를 자신의 인지적 스토리와 결합시켜 해당 프레임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측면에서 뉴스 프레임을 프레임과 텍스트, 수용자 간의 상호작용의 틀로 보고 있다. 거시적 담론으로 이데올로기가 텍스트와 텍스트를 둘러싼 모든 번역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텍스트가 생산되고 유통되는 과정에서 프레임 작용의 구체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프레임과 뉴스스토리인 내러티브, 그리고 수용자의 인식의 과정에서 각자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 중심적 과정에 뉴스텍스트가 위치하며 프레임에 기반하여 사건들을 의미 있게 연

30) 김순미, 「번역 텍스트 내의 정치적 내러티브 리프레이밍」, 『번역학연구』 제14권 2호, 2013, 93쪽.

31) 최수진, 「한류에 대한 미·중 언론보도 프레임 및 정서적 톤 분석」, 『한국언론학보』 제58권 2호, 2014년, 511쪽.

결하는 내러티브가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주제 또는 프레임을 나타내는 뉴스텍스트의 지표적 요소들은 어휘 선택에 기반을 둬서 텍스트를 구성하는 단어의 선택과 하나의 뉴스 내러티브를 형성하기 위한 단어들의 구성이 해당 언론보도의 프레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소³²⁾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를 하나의 프레임링 수단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는 이데올로기가 텍스트에 영향을 미친 흔적을 찾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를 구성하는 지표인 어휘나 문체 등의 언어적 변화가 뉴스텍스트의 프레임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살펴보게 된다. 따라서 중국의 번역뉴스에 대한 편역은 그들의 해석 프레임을 토대로 핵심사건의 내러티브를 재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들의 텍스트 구성요인의 변화와 내러티브를 분석하면 원문의 프레임이 어떻게 전환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연구자들은 프레임 변화가 어휘적인 측면의 편향화 혹은 과도화, 재어휘화의 방식으로³³⁾ 전개된다거나, 선택적 구성 혹은 라벨링³⁴⁾으로 파악하기도 했지만 이를 유형화하여 한·중 간 번역에 적용하기에는 사례가 충분치 않으며, 한·중 간 뉴스번역의 프레임 전환을 고찰한 연구조차 전무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한국의 뉴스 원문이 중국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뉴스 어휘의 사용을 위한 선택, 강조, 생략, 표현의 변화 등 내러티브 구성이 텍스트를 둘러싼 프레임을 어떠한 형태로 변화시키는지 파악한다. 이 과정에서 중국 번역뉴스에서 프레임이 뉴스의 주제적 구성을 통해 드러날 것이고, 원문뉴스가 제공한 뉴스소재의 어떠한 요인을 변화시켜 프레임을 전환하는지 그 양상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32) 최수진, 위의 논문 512쪽.

33) 쉬잉(徐英), 「新闻编译中意识形态的翻译转换探索」, 『中国翻译』2014(3), 98-102쪽.

34) 청웨이, 위의 논문, 27-32쪽.

4. 『참고소식』 번역뉴스 분석

1) 연구방법과 텍스트 분류

뉴스 프레임 연구 가운데 뉴스 내용의 구성방식 특성과 텍스트 가치체계 분석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텍스트 분석적 뉴스프레임 연구이다. 텍스트 분석적 뉴스 프레임 연구는 '내용분석 방법'을 기초로 하여 뉴스 텍스트 내용이 담고 있는 가치와 입장에 주목한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연역적 방법과 귀납적 방법이 있다.³⁵⁾ 연역적 방법은 선행연구에서 검증된 프레임을 적용하거나 내용분석을 통해 미리 특정 프레임을 정의한 뒤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 연역적 방법은 결정된 프레임을 언론보도 속에서 확인하는 것이므로 큰 크기의 표본도 분석가능하며 반복연구가 쉽다는 장점이 있다. 번역학 연구에서는 모나베이커가 제시한 프레임을 변화시키는 내러티브의 4가지 구성방식을 놓고 적용한 연구들이³⁶⁾ 이에 해당 한다. 다만 선행연구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프레임이 간과된다는 문제가 있고, 국내 뉴스번역에 관한 선행연구가 모나베이커의 연구방법을 제외하고는 적용된 경우가 없어 기준으로 삼을 만한 선행연구가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있다.

귀납적 연구방법은 프레임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고 시사각각 변화하는 뉴스 보도에 따라 다양한 프레임을 찾아내는 것으로 새로운 이슈가 등장한 뉴스보도에서 주로 사용된다.³⁷⁾ 텍스트를 구성하는 문장의 다양한 맥락적 단서인 단어의 선택과 배제, 용어선택과 전환 및 특정 키워드 사용으로 뉴스의 방향을 어떻게 이끄는지 살펴보게 된다. 귀납적 방법은 여러 가지 해석적 가능성을 열어놓고 특정 뉴스가 어떤 뉴스로 전환하는지 다양한 프레임을 찾아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는 특정한 프레임을 찾아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번역뉴스 텍스트를 구성하는 요인들이 어떻게 프레임을 변화시키는지 파악하려는 탐사적 사례연구에 가깝

35) 최수진, 위의 논문, 517쪽.

36) 김기영(2013), 김순미(2013) 등.

37) 정수영·유세경, 「중국과 일본의 주요 일간지에 실린 대중문화 한류관련 뉴스분석」, 『언론정보연구』 제50권 1호, 2013년, 135쪽.

다. 따라서 프레임의 특성과 유형을 파악하여 뉴스를 분석하는 연역적 방식보다, 텍스트의 특정한 언어적 맥락을 찾아서 그 맥락들을 유형화하는 방식으로 번역뉴스의 프레임 전환 과정을 설명한다.

연구의 대상이 되는 『참고소식(參考消息)』은 중국 국가통신사인 신화통신사가 발간하는 일간지로 『환구시보(環球時報)』와 함께 중국에서 합법적으로 직접 외신 보도를 실을 수 있는 유일한 신문이다.³⁸⁾ 1931년에 창간되어 8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처음에는 외국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서적의 형태로 공산당 내부 고위층에만 공개되는 간행물이었으나, 1985년 전 국민에게 개방되었다. 현재는 대중적 일간지로 하루 평균 약 340만부를 발행하며, 30여종의 외국어 뉴스를 번역보도 하고 있다. 바이두 백과사전에서는 참고소식이 외신을 번역보도 함에 있어 원문의 사실과 스타일에 충실하고 원작자의 견해와 입장을 그대로 보여주는 신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2012년부터 인터넷(www.cankaoxiaoxi.com)과 모바일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어서 해외에서 중문 텍스트에 접근이 용이해져 번역뉴스의 실증적 연구에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번역뉴스의 프레임 전환과 그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2016년 7월 1일부터 2016년 10월 31일까지 4개월 간 『참고소식』에서 다루어진 한국관련 뉴스를 모두 검색한 후 이 가운데 연합뉴스를 원문으로 한 번역뉴스만을 다시 추려서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연합뉴스에서도 중문 뉴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프레임의 전환을 살펴보기 위해 연합뉴스 중문판의 한국뉴스가 『참고소식』에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비교할 수 있었다. 따라서 4개월 간 『참고소식』에서 보도된 연합뉴스를 원문으로 하는 번역뉴스 총 29편과 그 원문뉴스 29편, 그리고 연합뉴스가 제공한 중문 뉴스 29편, 총 87편의 뉴스문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뉴스를 유형별로 나누어 보았는데 번역뉴스의 선택이 정치, 외교, 문화, 사회, 연예 등 일반적 뉴스의 지면에 따르지 않고, 매체의 편집의도와 연관된바, 본 연구에서는 29편의 선택된 원문뉴스를 뉴스의 주제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하였다.

38) 바이두(www.baodu.com) 백과사전

〈번역뉴스 주제에 따른 분류〉

뉴스 분류	국방	북한(핵)	중국어선	경제	사회
총 29 편	5	14	4	1	5

번역뉴스를 전문적으로 보도하는 참고소식의 기사는 주로 정치·경제·사회 등의 하드뉴스를 중심으로 보도하거나³⁹⁾, 해당 시기는 마침 북한의 연이은 핵 실험 이후 본격 제재 국면에서 7월 초 사드배치 발표로, 관련된 논의와 뉴스가 한창인 시기이었고, 9월에는 5차 핵실험이 강행되었다. 또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가 심각했던 시기였던 관계로 대부분의 뉴스가 해당 이슈에 편중이 되어있었다. 다만 사드배치와 관련해서는 중국 기자가 다양한 외신(한국매체 포함)을 인용해 직접 쓴 국제뉴스⁴⁰⁾가 대부분이었고 극히 일부의 단신만이 번역뉴스로 확인된바, 관련 뉴스를 국방 카테고리 안에 포함하여 분류하였다.

다음으로 번역된 뉴스들의 번역형태에 따라 전역(全譯), 요약번역, 편역(編譯)의 3가지로 분류하였다. 총29편의 기사 가운데 편역된 뉴스가 23편으로 가장 많았고 요약번역이 4편, 전역이 2편이었다.

〈뉴스번역 방법에 따른 분류〉

뉴스방법	원문뉴스	뉴스분류
전역	홍도해상 중국어선 화재, 승선원 3명 의식불명	중국어선
	갤럽 '朴대통령 지지도 25%' 5주연속하락 최저치 갱신	사회
요약번역	국민 4명중 3명 해외파병에 찬성 (국방부 설문)	국방
	韓여성 평균키 162.3cm 100년새 20cm 세계1위 폭풍성장	사회
	180억짜리 초호화 제주도 콘도 5채 중국부호들 싹쓸이	사회
편역	서울 찾는 중국인 수학여행객 급증, 관람료 등 지원	사회
	朴대통령 "사드, 성주內 다른 지역 배치도 검토"	국방
	국방부 "상주지역내 다른부지 가용성 요청하면 검토할 것"	
	〈2017 예산〉 북핵·미사일 위협 방어력 보장, 국방비 40조원	
국방부 "美전략무기 상시 순환배치, 확장억제 강화할 것"		

39) 참고소식의 뉴스분류 참조 <http://www.cankaoxiaoxi.com>

40) 국제뉴스는 국제부 기자가 편집과 가공, 인용 등을 기반으로 특정 주제의 여러 외신들을 소스로 직접 작성한 뉴스를 말한다. 국제뉴스와 번역뉴스의 구분에 대한 내용은 강수경 (2016) 참조.

北, 탄도미사일 3발 발사...성주 사드배치 겨냥해 '무력시위'	북한
통일부 "북한 대남 '난수 방송' 재개 심히 유감"	
중국에 황금어장 내준 김정은...“주민생활 뒷전·통치자금 우선”	
北 노동당 대표단 아프리카 방문...단장에 리수용	
태영호 駐英 북한 공사 한국 귀순...가족과 함께 입국	
북중교역 거점 단등서 대북제재 이완 조짐...교역 급증세	
대북소식통 “北, 해외주재 외교관·무역일꾼 가족 소환령”	
北 김정은 “SLBM 시험발사, 성공 중의 성공...핵공격 군사대국”	
한일외교장관, 北 핵실험에 ‘추가적 대북조치’ 강구하기로	
홍용표 “단시일 내 또 핵실험 가능성”	
한민구 “김정은 제거 특수부대 운용 계획 있다”	
통일부 “2016 회계연도 北 식량 부족량 70만 톤 육박”	
朴대통령, ‘北지옥’ 규정하며 탈북 촉구 “모든 길 열어 맞이”	
합참 “북한 무수단 미사일 7시께 발사...발사 직후 실패”	
해경 고속단정 침몰시키고 도주한 중국어선 수배	중국어선
유탄전은 옛말 이젠 살상도 빈번...꽃게칠 서해는 전쟁터	
“해경단정 향해 돌진했다”...검찰, 화제 中어선 선장 기소	경제
‘중국 의존도’ 면세점 80%·해외직판 70%...‘불안한 호황’	
범죄자 ‘외국 도피’ 매년 증가...최대 도피처는 중국	사회

원문뉴스의 형태와 스타일, 프레임까지 그대로 살려 번역한 뉴스인 전역은 총 2편으로 일반적으로 길이가 짧다는 류치중의 형식적 분류가 그대로 적용되었다. 내용적 특징으로는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중국어선 구조소식 등으로 중국의 국가 이익 혹은 이미지 손상과 관련되지 않은 전달 그 자체로 가치가 높은 기사라 하겠다. 내용적 특징을 유사하게 지닌 다른 뉴스들 중에 특히 내용이 긴 뉴스들은 요약 번역된 것으로 보인다. 뉴스 주제로 보면 사회관련 소식들은 주로 전역이나 요약 번역의 형태로 원문의 프레임에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나, 정치, 외교 등 중국의 이해가 맞닿은 뉴스들은 모두 편역되었다. 본 연구는 편역에서 드러난 텍스트의 전환양상을 프레임에 기대어 설명하는바, 본격적인 텍스트 분석은 편역된 뉴스들을 대상으로 한다.

2) 텍스트 분석

번역뉴스의 프레임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뉴스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기표들에

변화가 생긴다. 본 연구에서 번역된 텍스트를 분석한 결과, 해당기간 참고소식의 번역뉴스들은 첫째, 독자들이 뉴스의 내용을 한눈에 알아보도록 유도하는 헤드라인 부분은 절대적으로 재구성되었다. 원문뉴스의 제목을 그대로 번역하기보다 중국인의 가독성 혹은 프레임 전환을 위해서 재구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프레임의 전환은 원문뉴스에 대한 삭제 중심을 중심으로 번역이 진행되었다. 프레임 재구성의 주요한 특징이 선택성과 현저성인 바, 참고소식은 삭제를 통한 선택성을 강조하는 번역 전략을 수행하고 있었다. 셋째, 큰 따옴표 등 중국어에 존재하는 독특한 문장부호의 활용을 통한 특수한 프레임 전환 전략이 있다. 넷째, 프레임의 전환 없이 원문을 단순 편집한 번역 현상도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프레임 전환의 번역은 한 가지 전략만이 아닌 다양한 전략을 중복적으로 사용하였다.

(1) 가독성을 높인 원문중심의 번역

앞서의 논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번역뉴스의 프레임을 결정하는 기본적인 논거는 '국가적 이익과 이해'가 된다. 따라서 『참고소식』의 프레임 전환의 기본적 전제는 중국의 국가적 이익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동시에 류치중의 주장과 같이 나라마다 뉴스에 대한 시각과 관점에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으므로 그대로 베끼는 식의 번역도 안 되지만, 국제뉴스 자체가 문학작품의 창작이 아닌 만큼 함부로 편집해서도 안 된다는 원문중심의 접근이 존재하고 하는 것은 사실이다.

참고소식의 번역된 뉴스들 가운데 전역(全譯)과 요약번역은 원문인 한국뉴스에 대한 프레임 전환 없이 번역된 방법이었다. 프레임 전환을 예상한 번역의 경우에도 중국 내 독자들의 가독성 향상을 위한 단순 편집만을 수행하여 한국뉴스의 프레임 변화 없이 원문의 스타일을 그대로 유지한 번역이 존재했다.

사례1) 프레임의 변화 없이 단순 편집된 번역 사례141)

ST: 통일부는 20일 북한이 최근 2000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중단했던 남과 공작원 지령용 '난수(亂數) 방송'을 16년 만에 재개한 것을

41) ST는 원문인 한국뉴스이고, TT는 번역된 중국뉴스를 의미한다.

비판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난수 방송 재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자, “난수 방송을 상당 기간 자제해 오다 최근 들어와서 재개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 한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북한의) 여러 가지 의도를 단정적으로 제가 공개된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다”며 “그렇지만 북한이 이러한 구태의연한 태도를 빨리 지양을 하고, 남북한의 발전에 기여하는 쪽으로 행동에 나서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북한 평양방송은 지난 15일 정규 보도를 마친 00시 45분부터 12분간 여성 아나운서의 목소리로 “지금부터 27호 탐사대원을 위한 원격교육 대학 수학 복습과제를 알려드리겠다”면서 “459페이지 35번, 913페이지 55번, 135페이지 86번...”과 같은 식으로 다섯 자리 숫자를 잇달아 방송했다. 특정 책자의 페이지와 글자의 위치를 통해 남과 공작원에게 지령을 내리는 듯한 방송이었다.

TT: 韩媒称, 韩国统一部发言人郑俊熙20日在例行记者会上表示, 韩国政府就朝鲜最近重启对在韩朝鲜间谍传达指令的“暗号广播”深表遗憾。据韩联社7月20日报道, 郑俊熙表示, 希望朝鲜尽早放弃这种老套手法, 以实际行动为韩朝关系发展而努力。报道称, 7月15日, 朝鲜平壤广播电台从0时45分起播出“第459页第35号”“第913页第55号”“第135页第86号”等五个数字。这被视为让在韩朝鲜间谍获悉指令。

7월20일자 연합뉴스 기사인 <통일부 “북한 대남 ‘난수 방송’ 재개 심히 유감>의 전문이다. 이 가운데서 내용이 중복되거나 특별히 언급하지 않아도 내용 전개에 영향이 없는 부분을 적당히 줄여 밀줄 친 부분의 내용만으로 편집해서 프레임의 변화 없이 원문의 스타일을 그대로 살려 요약번역된 것을 볼 수 있다. 한국뉴스 원문에서 반복적으로 전개되거나, 중국어 흐름에 맞지 않아 번역되었을 경우 어색한 부분의 앞뒤문장을 이어 붙여서 편역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원문뉴스가 지니고 있는 ‘북한의 구태’이라는 프레임이 번역뉴스에서 변화되지도 않았다. 원문에서의 직접인용 부분을 간접인용으로 바꾸어 줄이면서 문장의 앞뒤를 연결해 준 모습이 보이는데 이는 류치중의 논의와도 유사한 형태이다.

사례2) 프레임 변화 없는 단순 편집을 통한 편역 사례2

ST: 외국으로 도피하는 범죄자가 해마다 늘어나고, 최근 가장 많이 도

피하는 곳은 중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불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외국으로 도피한 사범은 2천 373명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381명, 2013년 440명, 2014년 487명, 2015년 675명으로 매년 증가했고, 올해는 6월까지만 해도 390명이었다.// 주요 도피 국가는 미국, 중국, 일본 // 등으로 2012년~올해 6월 미국으로 도피한 인원은 382명, 중국은 329명, 일본은 131명이었다. 2014년까지는 미국이 중국을 앞섰으나, 지난해부터는 중국이 최대 도피처로 떠올랐다.// 중국으로는 지난해 103명, 올해는 상반기까지 56명 도피했고,// 미국으로 도피한 범죄자는 지난해 96명, 올해 상반기에는 51명을 기록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사기(760명), 업무상 횡령(174명), 마약류관리법 위반(130명), 병역법 위반(53명) 순이었다.// 특히 사기범의 도피는 2012년 118명, 2013년 148명, 2014년 151명, 2015년 204명, 올해 상반기 139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박주민 의원은 “외국 도피 사범이 늘어났다는 점은 범죄 수사에 관한 사법당국의 신뢰를 저해하는 원인이 된다”며 “불구속 상태를 악용해 재판 도중 해외로 도주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법당국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TT: 韩媒称, 韩国国会法制司法委员会成员、共同民主党议员朴柱民9月19日公开法务部提交的资料显示, 潜逃海外的罪犯逐年增加, 最大潜逃目的地是中国。

据韩联社网站9月19日报道, 资料显示, 2012年到2016年6月被立案却未被批捕情况下潜逃海外的罪犯为2373人, 具体来看, 2012年为381人, 2013年为440人, 2014年为487人, 2015年为675人, 今年上半年为390人, 逐年增加。

报道称, 主要潜逃目的地是美国、中国和日本。截至2014年, 美国是最大潜逃目的地, 但从2015年起中国成为最大潜逃目的地。去年有103人逃亡中国, 今年上半年有56人逃至中国。涉及的犯罪类型主要包括诈骗、挪用公款、违反毒品类管理法、违反兵役法等。朴柱民说, 司法当局应彻底防止罪犯利用未被批捕的情况下, 受审期间外逃。

원문의 밑줄 친 부분이 번역되었으며 서로 다른 문장을 이어 붙여 한 문장으로 재편집한 부분은 번역문의 문장단위가 마침표로 끝나는 부분에 '//로 표기하였다. 원문뉴스에서 밑줄 친 부분을 제외하고 삭제한 것이 아닌, 한국어와 중국어의 문

장구조가 다른 부분을 조정하여 중국어 어법과 관습에 맞게끔 문장의 구조를 바꾸어 편집하였고, 중국어 흐름에 맞게 조정해서 중국 독자들의 가독성을 높였다. 이와 같이 중국독자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편집으로 번역되어진 뉴스들은 프레임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프레임의 변화 없이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번역은 류치중의 조언대로 2차적 커뮤니케이션의 가치가 높으면서 동시에 '국가적 이익'에 위협이 되거나 독자들의 기존 관습과 별다른 차이가 나지 않는 내용들이므로 확인된다. 전체 연구대상 29편의 번역뉴스 중에 5편이 해당되었는데, 주제도 한정적이지 않아서 국방, 경제, 사회 관련 뉴스들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다. 다만 이러한 원문중심의 번역은 하드뉴스 혹은 소프트뉴스와 상관없이 원문뉴스에 중국 독자들의 관습과 어긋나는 내용이 없을 경우에만 수행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표제어의 재구성

뉴스의 구성에는 일종의 표준화된 구조가 존재한다. 뉴스의 맨 앞부분에는 헤드라인과 리드가 놓이고 본문이 연결되는 구조이다. 뉴스에서 표제어는 뉴스본문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지시적 기능을 하여 수용자의 인지 속에 존재하는 사회적 관습과 문화를 끄집어내어 제시된 프레임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수용자들의 뉴스에 대한 이해에 많은 영향을 주는 부분이다.

〈표제어 번역에 따른 분류〉

표제어 번역	표제어	뉴스 분류
원문 유지	韓여성 평균키 162.3cm...100년새 20cm 커져 세계1위 '폭풍성장' 韓女性百年增高20厘米至162厘米 增速世界第一	사회
	국방부 "성주지역내 다른부지 가용성 요청하면 검토할 것" 韓軍方：將對在星州別處部署薩德進行可行性研究	국방
	한일외교장관 北 핵실험에 '추가적 대북조치'강구하기로 韓日外長商定對朝鮮採取額外制裁措施	북한
	홍도 해상서 중국어선 화재...승선원 3명 의식불명 一中國漁船在韓海域失火 14人獲救3人昏迷	중국 어선

	<p>갤럽 “朴대통령 지지도 25%…5주 연속 하락해 최저치 경신” 民調：韓國總統朴槿惠支持率降至25% 再創新低</p>	사회
선택적 재구성	<p>해경 고속단정 침몰시키고 도주한 중국어선 수배 韓媒稱一艘中國漁船沉沒韓國海警快艇後逃</p>	중국 어선
	<p>180억짜리 초호화 제주도 콘도 5채 중국 부호들 싹쓸이 中國豪客購韓國濟州嶺別墅 一棟1億元人民幣</p>	사회
	<p>범죄자 ‘외국 도피’ 매년 증가…최대 도피처는 중국 韓國潛逃海外嫌犯逐年增加 逃中美日居多</p>	
	<p>서울 찾는 중국인 수학여행객 급증…관람료 등 지원 中國學生修學游首爾火爆 人數連續6年遞增</p>	북한
	<p>北, 탄도미사일 3발 발사…성주 사드배치 겨냥해 ‘무력시위’ 朝鮮發射3枚導彈 或抗議韓國決定部署薩德</p>	
	<p>통일부 “북한 대남 ‘난수 방송’ 재개 심히 유감” 朝鮮重啓“暗号广播” 韓方斥“手法老套”</p>	
	<p>北 노동당 대표단 아프리카 방문…단장에 리수용 朝鮮李洙暎率代表團經由北京赴非洲訪問</p>	
	<p>태영호 駐英 북한 공사 한국 귀순…가족과 함께 입국 朝鮮僑駐英外交官携家屬抵韓 系朝高官之子</p>	
	<p>홍용표 “단시일 내 또 핵실험 가능성” 韓軍方認為朝鮮隨時可進行第六次核試驗</p>	
	<p>대북소식통 “北, 해외주재 외교관·무역일꾼 가족 소환령” 韓媒稱朝鮮7月中旬之後召回駐外人員家屬</p>	
	<p>한민구 “김정은 제거 특수부대 운용 계획 있다” 韓國防長：韓軍計劃緊急情況下用特种部隊“鏟除”金正恩</p>	
	<p>통일부 “2016 회계연도 北 식량 부족량 70만 톤 육박” 韓媒：朝鮮糧食缺口近70萬噸 呈持續增加態勢</p>	
	<p>국민 4명 중 3명 해외파병에 찬성(국방부 설문조사) 超7成韓國人贊成對外派兵 稱易獲國際援助</p>	국방
	<p>국방부 “美 전략무기 상시 순환배치, 확장억제 강화할 것” 韓稱美戰略武器常駐朝鮮半島增強“延伸威懾”</p>	
전면 재구성	<p>朴대통령 “사드, 성주內 다른 지역 배치도 검토” 朴槿惠稱民眾憂輻射 可考慮改變薩德部署地點</p>	국방
	<p><2017 예산> 北 핵·미사일 위협 방어력 보강…국방비 40조원 킷 돌파 韓增編2017財年國防預算 減少統一事務預算</p>	
	<p>중국에 황금어장 내준 김정은…“주민생활 뒷전·통치자금 우선” 朝鮮向中國轉讓半島東部海域漁業捕撈權</p>	북한
	<p>북중교역 거점 단등서 대북경제 이완 조짐…교역 급증세 鴨綠江大橋近期將維修 中朝邊貿車輛排長龍</p>	
<p>北 김정은 “SLBM 시험발사, 성공 중의 성공…핵공격 군사대국” 韓軍認為朝鮮最新導彈試射成功 安理會緊急開會</p>		

朴대통령, '北지옥' 규정하며 탈북 촉구 "모든 길 열어 맞이" 朴槿惠称將打開所有通道迎接朝鮮居民赴韓安居	
합참 "북한 무수단 미사일 7시께 발사...발사 직후 실패" 韓軍方稱朝鮮試射導彈失敗 疑似"舞水端"	
"해경단정 향해 돌진했다"...검찰, 화재 중어선 선장 기소 韓海警投震爆彈致3漁民死亡 中國船長反被起訴	어선
육탄전은 옛말 이젠 살상도 빈번...꽃게질 서해는 전쟁터 韓媒稱中國漁民黃海越境捕撈 韓方執法趨于"嚴厲"	
'중국 의존도' 면세점 80%·해외직판 70%...불안한 호황 韓衆多行業依賴中國 憂部署"薩德"引發銷售危機	경제

위의 표제어 분류표에서 알 수 있듯이 본문과 분리하여 표제어만 분석할 경우, 거의 모든 표제어가 원문과 다르게 변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문을 번역할 때 원문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처럼 원문 표제어를 그대로 유지하지는 않지만, 원문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그대로 유지된 표제어들이 있는데 주로 본문이 전역이나 요약번역된 경우에 해당한다. 중국 독자들이 표제어를 통해 뉴스를 좀 더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가독성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 원문 중심으로 번역한 것들 중에 사드와 북핵 관련 뉴스 부분은 원문뉴스가 포함하고 있는 사실인 팩트(Fact)를 표제어로 전달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선택적으로 재구성'된 표제어들은 한국어 원문 표제어에 제시된, 중국 부호 짝꿍이 / 최대도피처 중국 / 무력시위 등 중국에 부정적으로 묘사된 부분들을 삭제하는 형태가 있었다. 또한 緊急情況下(긴급상황시) / 7月中旬之后(7월 중순이후) / 随时(언제든지) 등과 같이 한국어 원문에 시기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뉴스의 맥락을 이해하고 있지 못한 중국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시간을 명시하였다. 선택적으로 재구성되는 표제어들은 삭제와 추가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새롭게 작성된 표제어들이 '전면 재구성'은 북한 관련 뉴스에서 한국 표제어가 갈등적인 상황을 부각하거나, 객관적으로 보기에 적합하지 않아 보이는 부분을 삭제하면서 표제어를 재구성한 것들로, <北 핵·미사일 위협 방어력 보강...국방비 40조원 첫 돌파>라는 국방비 증액관련 표제에 <...減少統一事務預算(통일예산은 감축)>이라는 본문의 일부 내용을 표제어로 추가하면서 한국의 통일에 대한 의지가 약화되며 군비에 힘을 쏟는 일종의 '군비경쟁' 프레임으로 전환하기도 했고,

〈'중국 의존도' 면세점 80%·해외직판 70%...'불안한 호황'〉이라는 단순 경제뉴스에 〈韩众多行业依赖中国 忧部署“萨德”引发销售危机(한국 대부분 산업 중국에 의존, 사드 배치로 매출 위기 올까 우려)〉와 같이 사드 관련 부분을 삽입하여 재구성하는 등 원문뉴스의 프레임 전환을 의도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또한 북한 관련 소식에서는 한국 뉴스 원문의 북한에 대한 적대적 묘사나 격앙된 표현들을 삭제하면서 객관적 상황만을 전달하려는 중립적 자세를 보여준다.

중국어는 한자 자체가 가지는 간결함과 글자마다 내포하는 뜻이 풍부하다는 특성으로 인해 같은 크기의 공간이 주어졌을 때 보다 풍부한 내용을 담을 수 있어서 중국 신문기사의 헤드라인은 보다 구체적이며 정보량이 많은 특성이 있다.⁴²⁾ 따라서 표제어의 구성에 보다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표제어의 '선택적 재구성'이나 '전면 재구성'에서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또한 이들 추가된 내용들은 모두 본문에 언급된 사실(Fact)을 활용한 것이며, 본문에 없는 내용을 추가로 넣고 있지는 않다. 즉 뉴스본문에 언급된 사실을 표제어에 추가 제시하여 최대한 객관적인 뉴스번역인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삭제-추가-재구성 되는 방식으로 프레임의 전환을 시도한다는 것을 표의 예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 삭제를 통한 프레임 전환

현실을 재구성하고자 매체가 주목하는 것은 사건의 사실(Fact)이지만, 그 사실 자체엔 고착화된 의미가 없다.⁴³⁾ 프레임이 사실과 의견 정보를 적절히 배열하는 기준이 되어서 일관된 이야기로 구조화될 때 그 의미가 살아나는데, 앞선 연구자들의 논의에 따르면, 선택성과 현저성이라는 프레임의 특성이 텍스트를 결정하게 된다. 즉 팩트가 되는 사안의 특정한 측면에 대한 강조, 축소, 배제의 작업을 통해 선택성과 현저성이 드러나게 되는데, 참고소식의 번역뉴스에서는 삭제를 통한 선택과 배제의 방식으로 프레임이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정보의 특정부분을 선택하여 강조한다고 하는 것은 정보의 또 다른 부분은 약화시키거나 삭제시킨

42) 류치중(2004), 위의 책, 126쪽.

43) 김경모·정은영, 「내러티브 프레임과 해석 공동체」,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57호, 2012년, 110쪽.

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번역뉴스는 원문뉴스의 특정부분을 삭제하는 것만으로도 원문의 뉴스에서 번역되어 선택된 특정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무엇을 포함하는가와 마찬가지로 무엇을 생략하는가가 상당히 중요해지는데, 삭제행위 자체가 번역 방법으로 연결되어 참고소식의 번역뉴스는 선택된 그 자체가 강조이고, 삭제된 그 자체가 약화라는 것을 보여준다.

① 삭제: 선택과 배제로 프레임 전환

삭제는 원문이 되는 한국 뉴스의 내용 중 매체의 프레임에 부합되는 내용만을 선택하여 번역하고 그렇지 않은 내용은 아예 배제 방식으로 내러티브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소식의 번역뉴스는 한국 원문뉴스가 내재하고 있는 프레임의 전환을 위해 갈등적이거나 중국의 국가적 이해와 상충되는 부분을 제거하는 방식만으로도 프레임 전환이라는 목적인 바를 이루어 내고 있다.

사례3) 삭제를 통한 프레임 전환1

ST: 북한의 작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식량 부족분은 69만4천t 규모로 추정됐다.

27일 통일부가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을 인용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회계연도의 북한 식량 수요량은 549만5천t인데 비해 생산량은 480만1천t으로 추정됐다. FAO와 WFP가 사용하는 식량 회계연도는 전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다. 북한의 식량 부족량은 2014회계연도 34만t, 2015회계연도 40만7천t, 2016회계연도 69만4천t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6회계연도 식량 부족량은 전년보다 28만7천t이나 증가했다. 지난해 곡물 생산량이 가뭄으로 감소하고 비료와 연료 공급이 부족했던 것이 식량 부족분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WFP에 통보한 북한 주민 하루 평균 곡물 배급량은 2013년 396g, 2014년 384g, 2015년 376g, 올해 1분기 370g, 올해 2분기 360g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북한이 제시한 배급 대상별 하루 평균 곡물 배급량(감량배급 기준)은 0~4세 234g, 5~14세 390g, 15세 이상 일반노동자 546g, 15세 이상 중노동자 및 군인 624g, 15세 이상 병·노약자 234g이다. 통일부는 의통위 제출자료에서 "식량배급은 평양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실제 배급은 시기와 작황 등에 따라 조절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2014년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UNOCHA) 자료를 보면 국제기구와 국제적십자, 개별 비정부기구(NGO), 개별 국가기관 등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은 2014년 3천 322만달러, 2015년 3천544만달러, 올해 9월 6일까지 3천790만달러로 늘었다.

북한 주민은 식량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북한 내 특권층은 자녀에게 월 1천달러 수준의 고액과외를 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북한에서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진학을 위해 사교육을 시키고 있다”며 “탈북민 진술에 따르면 사교육비 지출은 북한돈 월 3만원에서 50만원, 월 1천달러의 고액과외까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TT: 外媒称, 韩国统一部援引联合国粮农组织 (FAO) 和联合国世界粮食计划署 (WFP) 向国会外交统一委员会提交的资料显示, 2016年会计年度 (以去年11月至今年10月为准) 朝鲜粮食缺口约69.4万吨, 同比增加28.7万吨。

据韩联社网站9月27日报道, 资料显示, 朝鲜粮食缺口从2014年的34万吨增至2015年的40.7万吨, 今年更是增至69.4万吨, 呈持续增长的趋势。据分析, 去年朝鲜遭遇严重干旱, 谷物产量大幅减少, 且肥料、燃料供给不足是造成粮食缺口增加的主要原因。

朝鲜提交至联合国世界粮食计划署的资料显示, 朝鲜政府每天向每位居民配给的粮食量2013年以来持续减少。2013年396克, 2014年384克, 2015年376克, 今年第一季度和第二季度分别减至370克和360克。

据联合国人道主义事务协调办公室 (UNOCHA) 公布的资料, 2014年起国际社会向朝鲜提供的援助规模持续扩大, 国际机构、非政府组织、政府部门等向朝鲜提供的援助规模从2014年的3322万美元增至2015年的3544万美元。截至9月6日, 已提供援助3790万美元。

9월28일자 <통일부 “2016 회계연도 北 식량 부족량 70만t 육박”> 기사의 전문을 보면, 밑줄 친 부분인 비교적 긴 단락을 모두 통째로 삭제한 것을 볼 수 있다. 연령대나 직업 별로 배급량이 차이가 나고 매우 적음을 보여주며, 이어서 지역적 배급의 차등을 알려주는 부분은 한국뉴스에서 북한에 대한 부정적 프레임을 전달하는 핵심적 내러티브이다. 또한 마지막 두 단락 역시 탈북민의 진술과 고위층의 고액과외를 대비시켜 빈부격차를 보여줌으로써, 북한에 부정적인 프레임을 강화

하는 내용인데 전체가 모두 삭제되었다. 이 뉴스는 북한에 대한 부정적 프레임을 전달하는 내러티브의 삭제를 통해 선택된 텍스트들을 부각시킴으로써, 오히려 북한의 식량난이 가중되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지원이 증가하고 있다는 '북한지원' 프레임을 강화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

사례4) 삭제를 통한 프레임 전환2

ST: ...(앞부분 생략)... 단정에 타고 있던 해경 대원은 다른 해경 고속 단정에 구조돼 큰 부상을 당하진 않았지만 살인미수나 다름없는 의도적인 공격이었다. 중국 선원들은 한국 해경에 나포되면 최악의 경우 어선을 몰수당하고 담보금도 2억원까지 내야 하는 처벌 규정 때문에 격렬하게 저항한다. 해경이 배에 쉽게 올라타지 못하도록 어선 양옆에 쇠창살과 철망을 '철옹성'처럼 구축한 것은 기본이고, 쇠파이프·해머·손도끼·부엌칼 등 각종 흉기를 닦치는 대로 던지며 해경의 접근을 저지한다.

2008년 9월 목포해경 박경조 경위는 중국 선원이 휘두른 삽에 머리를 맞아 바다에 추락한 후 숨지고, 2011년 12월 인천해경 이청호 경사는 중국 선원의 흉기에 찔려 숨지기도 했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중국어선 선원의 폭력저항에 숨진 해경은 2명, 부상자는 73명이나 된다.

적법한 절차에 기반한 경찰의 단속을 폭력으로 모면하려는 시도에 해경이 대응 수위를 높인 것은 5년 전부터다. 해경은 2011년 3월 중국 선원을 향해 처음으로 조준사격을 가하며 대응 수위를 높였다. 해경은 충남 태안 해역에서 중국 선원이 휘두른 해머에 대원 1명이 중상을 입자 선원을 향해 발포, 다리에 관통상을 입히고 검거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특수기동대원 전원에게 K-5 총기를 지급했다. 이전에는 고무탄 발사기, 전자충격총 등 비살상 무기를 주로 사용했지만 총기도 적극적으로 사용해 중국 선원의 저항 의지를 무력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2012년 10월에는 전남 신안 해역에서 중국 선원 장모(44)씨가 해경이 쏜 고무탄에 맞아 숨졌다. 해경 단속 과정에서 해경 진압 장비에 숨진 최초의 사례다....(뒷부분 생략)...

TT: 报道称, 幸亏艇上海警被另一快艇救起, 没有身负重伤。不过, 2008年9月木浦海警一名警督被中国船员所持铁锹击中头部坠海死亡。2011年12月, 仁川海警一名警司遭中国船员持凶刺死。2011年3月, 韩国海警首次向船员开枪, 造成腿部贯通伤, 并将人带走。同年12月, 海警向特种机动队发放K-5型枪支, 明确了瓦解中国船员抵抗意志的决心, 而此前海警执法时主要使用橡皮弹枪、电击枪等非杀伤性武器。2012年10月, 在全

罗南道新安郡海域, 中国船员张某(44岁)被海警发射橡皮弹击中身亡, 这是韩国海警执法过程中出现的首例镇暴装备致死事件。2008年至今, 韩国海警已有2人因中国渔民“暴力抗法”而殉职, 73人因此受伤。

10월10일 연합뉴스의 <육탄전은 옛말 이젠 살상도 빈번... 꽃게철와 서해는 전쟁터>의 일부 기사이다. 밑줄 친 부분은 대개 중국어선이나 선원들의 불법 폭력행위에 대한 상세한 묘사와 이에 대해 살인미수에 가까운 공격이라는 평가, 그리고 한국해경의 단속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고 해경의 순직과 중상 등이 잇달아 어쩔 수 없이 대응수위를 높였다는 내러티브로 구성되고, 이 뉴스는 ‘중국어선의 불법폭력성’이라는 프레임을 전달하고 있다. 위에 제시된 참고소식의 번역뉴스는 중국어선의 불법성과 폭력성을 제시하는 내러티브를 모두 삭제함으로써, ‘한국해경의 과잉대응’이라는 프레임으로 전환을 시도한다. 즉 불법적 프레임을 모두 삭제한 중국뉴스를 보게 되면, 해경은 큰 부상을 당하지는 않았으나 과거 있었던 두건의 순직사건 이후 해경이 충기를 지급하고 중국선원들에 조준사격을 해 관통상을 입히고 검거하는 ‘한국해경의 복수전’ 같은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다. 새로운 프레임을 제시하기 위해서 추가나 어휘변환 없이 원문뉴스의 핵심적 내러티브를 제거할 뿐인데, 완벽하게 프레임이 전환되었다.

사례5) 삭제를 통한 프레임 전환³

ST: 북중교역의 거점인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에서 최근 양측 교역이 급증하는 등 중국의 대북제재가 일부 이완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북중교역의 70% 이상을 담당하는 단둥 압록강대교(중국명 중조우의교)의 임시 폐쇄가 임박한 가운데 일부 무역상들이 밀어내기식 수출에 나서면서 교역규모는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17일 북중접경 소식통에 따르면 이달 들어 단둥과 북한 신의주를 오가는 교역량이 급증해 대북제재가 시작된 지난 3월초에 비해 무려 7~8배 늘어났다.

TT: 韩媒称, 本月以来中国丹东和朝鲜新义州之间的双边贸易量猛增, 比3月初中国启动对朝制裁措施时高7-8倍。(한국매체에 따르면, 이달 들어 중국단둥과 조선 신의주 간 양자무역량이 급증해 대북제재에 들어간 3월초에 비해 7~8배가 늘었다.)

원문뉴스의 프레임은 '대북제재 중국이탈우려'의 프레임으로 중국의 대북제재가 완화될 조짐이 보이는 근거로 단둥에서의 교역 증가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중국어 번역뉴스에서는 앞부분의 내용을 모두 삭제하여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프레임을 지우고 단순히 북한과 중국의 국경무역이 활발해졌다는 북중교역의 경제 프레임으로 전환한 것을 볼 수 있다.

중국에서는 서방매체들이 보도문의 핵심적 가치를 모든 이야기의 양면성에 기초한 '갈등'적 사건에 두고 있으나, 이러한 내러티브가 중국의 뉴스쓰기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은 아니라고 주장한다.⁴⁴⁾ 상대적으로 중국 매체의 뉴스보도는 하드뉴스 스타일에 편향되어 있어 경향적으로 갈등의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참고소식의 번역뉴스 역시 뉴스에 드러나 있는 핵심적인 갈등의 내러티브를 삭제함으로써 뉴스의 사실(Fact)만을 남기고 갈등을 완화하면서 뉴스를 최대한 객관화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이야기의 구조로 보면 지그재그(zigzag) 모델이 직선형(linearity)으로 바뀌는 것이다. 참고소식의 번역뉴스들은 번역에 대한 원문의 조정이 과한 것에 대한 조심스러운 접근으로 추가적인 내용 없이, 갈등적 상황을 삭제하여 객관성을 획득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참고소식은 중국에 대한 부정적 프레임을 제거하고 사실관계를 유지한 채, 프레임의 선택성과 현저성을 이용하여 프레임을 재구성함으로써 효과적인 프레임 전환을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② 삭제 후 선택적 전용

모나베이커의 선택적 전용(selective appropriation)⁴⁵⁾은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원문에 내포된 내러티브의 특정 부분을 강화, 약화, 미화하기 위해 생략이나 추가를 하는 식으로 이루어지는 텍스트의 전용'을 의미한다(Baker 2006: 114). 일부 내용을 억제함으로써 다른 부분의 내용을 부각시키거나 혹은 적당히 증감함으로써 프레임을 전환하는 방식을 말한다. 참고소식의 번역자들은 1차적으로 한국뉴스가 지닌 프레임의 전환을 위해 갈등적 요인들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프레임

44) 청웨이, 위의 논문, 29쪽.

45) 김순미, 위의 논문, 71쪽에서 재인용.

전환을 시도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가독성과 좀 더 분명한 프레임 전환을 위해서 선택적으로 추가 등의 방법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참고소식의 번역뉴스에서 삭제 이후에 추가된 내용은 다음의 내용만 확인되었다.

사례6) 삭제 후 추가를 통한 선택적 전용

ST: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의 태영호 공사가 망명한 것과 관련, 북한 당국이 해외주재 외교관이나 무역일꾼 가족들에 대한 소환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태 공사의 탈북에 따른 후속조치 및 재발 방지 차원에서 이 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들을 사실상 인질로 잡아 핵심 엘리트층의 탈북을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영국 언론 등에 따르면 태 공사의 탈북 시점은 지난달 중순께로 알려졌으며, 이에 따라 북측의 소환령도 이후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으로서는 고위급 외교관이 탈북해 한국으로 망명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숙청도 잇따를 것으로 관측된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북한 당국의 해외주재 외교관 및 무역일꾼 가족들에 대한 소환령 여부에 대해 "정부로서는 북한과 관련한 상황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TT: 韩媒称, 据熟知朝鲜情况的一消息人士18日透露, 在朝鲜驻英国大使馆公使太勇浩(也称太永浩)投奔韩国后, 朝鲜已经召回外交官、商务人员等驻外人员的家属。

据韩联社8月18日报道, 分析称, 这些家属好比“人质”, 以防朝鲜精英层继续出逃。据英国媒体报道, 太勇浩于7月中旬出逃, 朝鲜的发布“召回令”的时间也应该在7月中旬之后。报道称, 韩国外交部发言人赵俊赫18日在记者会上答问时没有对朝鲜发出召回令的消息予以证实, 只表示会严密关注朝鲜相关动向。

韩联社8月17日援引韩国统一部发言人郑俊熙17日表示, 太勇浩在朝鲜驻英国大使馆仅排在大使玄鹤峰后, 在目前叛逃的朝鲜外交官中属于最高级别, 主要负责朝鲜体制的外宣工作。郑俊熙还指出, 如此高层的外交官弃朝投韩实属例外。

추가된 내용: (기자회견에서 질의응답 시 북한이 소환령을 내렸다는 소식에 대해 확인해 주지 않았으며 단지~ 라 말했다.)

(연합뉴스는 8월17일 정준희 한국 통일부 대변인의 17일 발언을 인용해 태영호는 영국주재 북한대사관에서 현학봉 대사 바로 다음 서열이며

현재로서는 탈북한 외교관 가운데 최고위급으로 북한체제에 대한 대외홍보를 책임지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정준희는 또 이런 고위급 외교관의 탈북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8월19일 연합뉴스가 보도한 <대북소식통 “北, 해외주재 외교관·무역일꾼 가족 소환령”>의 전문이다. 원문뉴스의 밑줄 친 부분은 탈북에 대한 후속조치나 숙청 등 검증되지 않은 사실로 이루어진 ‘북한에 대한 부정적 프레임’을 묘사하는 내러티브인데, 번역뉴스에서는 이 부분을 삭제한 후 번역문의 불덕 부분을 추가했다. 추가된 내용은 관련된 다른 연합뉴스의 기사에서 참고해 추가된 것으로, 참고소식의 편역자가 임의로 추가하거나 사실(Fact)관계가 아닌 것을 추가한 것은 아니다.

참고소식에서 추가나 어휘변환을 통해서 프레임의 전환을 시도하는 현상은 많지 않았다. 연구된 사례의 본문에서는 1건 정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표제어에서 번역문의 표제어를 좀 더 풍부하게하기 위해서 추가한 내용들 역시 본문에 있는 내용들이다. 따라서 참고소식의 편역뉴스에서는 어휘변환과 추가의 양상을 일반적인 현상으로 보기는 힘들다.

삭제 후 선택적 전용에서 가장 흔히 보이는 현상은 큰따옴표(引号)의 사용이다. 중국에서 큰 따옴표는 1)인용한 부분 2)특정한 명칭 3)특수한 함의를 갖는 것의 강조 4)부정이나 풍자의 의미 5)강조하여 서술하고자 하는 대상을 표시 6)특수한 의문의 표시로 부정을 나타냄 등으로 다양한 의미를 갖는다.⁴⁶⁾ 참고소식을 비롯한 중국의 매체들은 번역뉴스에서 큰따옴표를 라벨링을 통한 새로운 프레임 만들기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⁴⁷⁾

사례7) 큰따옴표 사용을 통한 선택적 전용 1

ST: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해경 대원들을 위협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선장 양모(41)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9시 45분께 전남 신안군 홍도 남서쪽 70km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단속에 나선 해경의 정선명령을 어기고 대원

46) 강수정(2011), 22쪽.

47) 정웨이, 위의 논문, 29쪽.

9명이 탄 해경 단정을 향해 돌진하는 등 위협하며 도주한 혐의다.

검찰은 앞서 무허가 조업·정선명령 불응 등 10가지 위반 유형을 저지른 100t 초과 선박에 대해 최고 2억원의 담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기준에 따라 양 선장에게 최고액인 담보금 2억원을 부과했다...(생략)...

TT: 韩媒称, 韩国光州地方检察厅木浦支厅21日以“涉嫌妨碍特殊执行公务罪”对在韩海域发生火灾命案的中国渔船的船长杨某提起公诉, 指控杨某涉嫌“抗拒韩国海警执法, 蓄意冲撞海警船, 险酿重大事故”。

据韩联社10月21日报道, 由于杨某涉嫌“无证捕捞, 拒绝停船命令”等10项违规, 检方要求杨某缴纳2亿韩元(约合人民币120万元)的保证金。

원문뉴스의 밑줄 친 부분이 번역문에서는 모두 큰따옴표 처리가 되어있다. 큰따옴표를 사용하면 원문을 원래의 의미와 글자 그대로 번역한 듯 보이지만 사실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단속에 나선 해경의 정선명령을 어기고 대원 9명이 탄 해경 단정을 향해 돌진’, ‘무허가 조업, 정선명령 거부’ 등의 부분에 큰따옴표를 추가하여 사실에 대한 부정과 특수한 의문을 포함으로써 원문이 갖는 부정적 의미를 모호한 개념으로 바꾼다.

한국어에서 직접인용에 사용되는 큰따옴표는 중국어에서는 특정한 명칭이나 특수한 함의를 갖는 부분 혹은 부정이나 풍자의 의미를 더하고자 할 때, 특수한 의문의 표시로 해당 내용에 대한 부정의 의미를 나타낼 때 사용된다. 따라서 번역 뉴스에서 큰따옴표를 추가하는 것은 실제로 라벨링⁴⁸⁾을 통한 새로운 프레임 만들기 전략을 교묘히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프레임 전환 방법은 다른 방법에 비해 번역문이 훨씬 원문에 충실해 보이는 효과를 준다.

사례8) 큰따옴표 사용을 통한 선택적 전용 2

ST: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의 태영호 공사가 망명한 것과 관련, 북한 당국이 해외주재 외교관이나 무역일꾼 가족들에 대한 소환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태 공사의 탈북에 따른 후속조치 및 재발 방지 차원에서 이 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들을 사실상 인질로 잡아 핵심 엘리트층의

48) 청웨이, 위의 논문, 29쪽.

탈북을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TT: 韩媒称, 据熟知朝鲜情况的一消息人士18日透露, 在朝鲜驻英国大使馆公使太勇浩(也称太永浩)投奔韩国后, 朝鲜已经召回外交官、商务人员等驻外人员的家属。据韩联社8月18日报道, 分析称, 这些家属好比“人质”, 以防朝鲜精英层继续出逃。

마찬가지로 원문 기사의 내용을 그대로 번역한 듯 보이지만 실제로 북한이 가족들을 인질로 잡았다는 표현에는 중국으로서는 동의하지 못하며 이에 대한 의문을 표하는 방식으로 큰따옴표를 사용했다. 글자 상으로는 똑같이 번역되었을지라도 ‘인질’에 큰따옴표가 들어갔기 때문에 중국어 번역기사를 읽는 중국 독자들은 원문과는 달리 ‘인질’이라는 표현은 다만 한국이 그렇게 말했을 뿐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이렇듯 큰따옴표의 활용은 겉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실제로는 프레임을 완전히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③ 삭제 후 문장 재배치를 통한 프레임 전환

참고소식의 핵심적 편역전략인 삭제전략은 원문기사의 사실(Fact)에 대한 손상 없이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측면에서 단순삭제를 통한 선택과 배제 전략에 덧붙여, 삭제 후 문장의 재배치 역시 뚜렷한 프레임 전환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사례9) 삭제 후 문장재배치를 통한 프레임 전환

ST: 지난달 29일 홍도 해상에서 발생한 무허가 중국어선 화재사건의 선장이 나포 당시 우리 해경단정을 향해 돌진해 충돌할 뻔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해경 대원들을 위협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선장 양모(41)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9시 45분께 전남 신안군 홍도 남서쪽 70km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단속에 나선 해경의 정선명령을 어기고 대원 9명이 탄 해경 단정을 향해 돌진하는 등 위협하며 도주한 혐의다.

양씨는 다른 배 어업허가증을 소지한 채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

(EEZ)에서 무허가 조업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 단정이 5m 전방에서 정선명령을 내렸음에도 양씨는 어선을 단정쪽으로 돌진시켜 단정이 가까스로 충돌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해경 대원들이 배에 오르지 못하도록 난간에 죽창 8개를 설치했으며 대원들이 배에 타자 선실 문을 잠근 채 지그재그식 운항을 하며 대원들이 넘어져 다치게 하고 중국해역을 향해 달아났다. 양씨는 해경이 조타실에 섬광폭음탄 3발을 던진 후 항해를 멈췄다.

검찰은 앞서 무허가 조업·정선명령 불응 등 10가지 위반 유형을 저지른 100t 초과 선박에 대해 최고 2억원의 담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기준에 따라 양 선장에게 최고액인 담보금 2억원을 부과했다.

확정된 담보금을 내면 선장과 선원 등 14명은 선박과 함께 추방 형식으로 귀국한 뒤 재판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양 선장이 담보금을 내지 않겠다고 버텨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양 선장은 선박이 압류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하며 다른 선원들은 참고인 신분으로 국내에 억류돼 있다.

검찰은 해경의 섬광폭음탄 투척 후 조타실에서 불이나 중국 선원 3명이 숨진 것과 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등 정확한 화재원인이 나오면 추가 혐의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TT: 韩媒称, 韩国光州地方检察厅木浦支厅21日以“涉嫌妨碍特殊执行公务罪”对在韩海域发生火灾命案的中国渔船的船长杨某提起公诉, 指控杨某涉嫌“抗拒韩国海警执法, 蓄意冲撞海警船, 险酿重大事故”。

据韩联社10月21日报道, 由于杨某涉嫌“无证捕捞、拒绝停船命令”等10项违规, 检方要求杨某缴纳2亿韩元(约合人民币120万元)的保证金。按期缴纳保证金后, 船长、船员等14人以及渔船将被驱逐出境, 涉事人员可在回到本国后接受韩国法院的审判。但杨某拒绝缴纳保证金, 因此法院发布了逮捕令, 杨某将在韩国受审, 其他船员以相关人身份被扣留在韩国。

韩媒称, 9月29日上午9时45分, 杨某带领其他船员在“韩国全罗南道新安郡红岛西南70公里处的韩方专属经济区内非法捕捞”, 海警向轮机室投掷震撼弹后, 轮机室一带发生火灾, 船上17人中14人获救, 3人陷入昏迷并最终身亡。

10월 21일 <“해경단정 향해 돌진했다”...검찰, 화재 中어선 선장 기소>의 전문이다. 번역기사에서는 원문기사에 밑줄 친 부분은 모두 삭제되었고 이탤릭체 볼딕으로 표시한 두 부분은 서로 순서를 바꿔 내려티브를 재정렬했다.

중국의 번역기사를 보면 우선 중국어선이 불법조업을 한 사실과 죽창 등을 설치

하고 정선명령에 응하지 않으며 폭력행위를 한 등의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부분인 전체기사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내용이 통째로 삭제되었고, 이탤릭체 볼딕으로 표기한 문단의 앞과 뒤 순서를 바꾸어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였다. 원문의 내러티브는 '중국어선이 불법조업을 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담보금을 부과했으나 거절해서 선원들이 억류되어있다'는 인과관계인데, 번역 기사를 읽을 경우 '한국이 선장에게 과도한 담보금을 요구해서 선원들이 귀국하지 못하고 억류되어 있다'는 것으로 읽힌다. 인과관계의 재정렬로 프레임의 전환이 일어난 것이다. 또한 마지막 단락의 '검찰은 해경의 섬광폭음탄 투척 후 조타실에서 불이나 중국 선원 3명이 숨진 것과 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등 정확한 화재원인이 나오면 추가 혐의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다.'에서 밑줄 친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해경이 섬광폭음탄을 투척해 조타실에 불이나 중국선원 3명이 숨졌다'로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어 기사 전체에 걸쳐 한국해경의 과잉대응으로 어쩔 수 없는 충돌사고가 발생했고 여기에서 해경의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한국 측이 과도하게 돈을 요구해서 선원들은 억류되어 있고 게다가 해경의 화재유발로 인해 중국선원 3명이 숨졌다는, 원문과는 정 반대의 프레임을 갖는 기사로 전환되었다.

5. 결론

뉴스에서 사실(Fact)을 가리키는 다양한 상징과 표현은 매체에 의해 재구성된 현실이고, 그 현실이 가리키는 것은 뉴스에 내재되어 있는 프레임이라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번역뉴스가 뉴스 텍스트의 다양한 상징과 표현들에 대해 '삭제'라는 방법을 통해서 프레임의 전환을 시도함을 확인하였다. 중국의 오래된 번역뉴스 전문 매체인 참고소식은 오로지 '삭제'의 방법에 기반하여 원문이 지니고 있는 프레임을 전환하거나, '삭제' 후 문장의 재배치, '삭제' 후 큰따옴표의 사용 등으로 프레임을 전환하고 있었다.

프레임과 내러티브를 연구한 학자들은 프레임을 강화하기 위해 특정 단어나 구

를 다르게 전환하여 번역하고 원문에 없는 표현을 추가하여 번역하기도 하며 강조하고 싶은 부분과 숨기고 싶은 부분을 감추며 프레임효과를 누리려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해당기간 추출된 참고소식 번역뉴스의 사례에서는 원문뉴스가 제시하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에는 변화가 없는 채로, 오로지 '삭제'를 중심으로 일관된 내러티브를 구성하며 프레임을 전환시키고 있었다. 물론 표제어에 본문의 내용을 좀 더 풍부하게 나타내주거나, 프레임전환을 위해서 표제어에 내용을 추가하거나 재구성하기도 하였지만, 그 추가되는 내용 역시 본문에 있는 사실관계에서 추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문의 텍스트 분석 사례는 삭제의 기법을 통한 선택과 배제라는 프레임 효과를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중국번역뉴스의 핵심 전략으로 제시된 '삭제' 중심의 사례는 표집 샘플의 수가 제한적이고 참고소식이라는 매체에 한정되어 있어, 중국 매체들이 진행하는 번역뉴스의 일반적인 전략으로 유형화 할 수는 없다. 또한 연구는 그 현황을 파악하고 양상을 유형화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탐사적 연구임을 명확히 하였다. 그럼에도 참고소식이 전개하고 있는 뉴스번역전략의 일면을 확인한 것은 삭제를 중심으로 하는 프레임 전환의 뉴스공식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진일보된 연구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후 좀 더 풍부한 연구를 통해서 편역전략을 구성하는 요소를 파악하고 그들 간의 연관관계를 세밀하게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參考文獻〉

- 강수정, 「중국 뉴스매체의 한국뉴스 편역보도에 관한 연구」, 『통번역학연구』 제15권,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연구소, 2011.
- 강수정, 「방송뉴스 번역 양상에 관한 연구」, 『통번역학연구』 제17권 1호,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연구소, 2013.
- 강수정, 「인민일보 번역뉴스의 가독성에 관한 연구」, 『중국문화연구』 제32집, 서울, 중국문화연구학회, 2016.
- 강지혜, 「번역에 대한 제도적 관점의 중요성 고찰」, 『번역학연구』 제13권 5호, 서울, 번역

- 학회, 2012.
- 김경모·정은령, 「내러티브 프레임과 해석 공동체」,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57호, 서울, 한국언론정보학회, 2012.
- 김기영, 「내러티브를 통해 살펴 본 국제뉴스 현지화 현상」, 『번역학연구』 제14권 2호, 서울, 번역학회, 2013.
- 김성해·김경모, 「동아시아공동체와 언론: 동아시아 지역과 역내 금융협력에 대한 한·중·일 언론의 보도 비교」, 『언론과학연구』 제10권 1호, 부산, 한국지역언론학회, 2010.
- 김순미, 「번역 텍스트 내의 정치적 내러티브 리프레이밍」, 『번역학연구』 제14권 2호, 서울, 번역학회, 2013.
- 김희범·우형진, 「한국과 일본신문의 '일본군 위안부' 보도프레임 유형 특성 연구」, 『미디어, 젠더 & 문화』 제31권 2호, 서울,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16.
- 송연석, 「이데올로기가 제도적 번역에 미치는 영향 연구」, 『번역학연구』 제12권 1호, 서울, 번역학회, 2011.
- 이동훈·김원용, 『프레임은 어떻게 사회를 움직이는가』,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12.
- 이준웅, 「갈등적 사안에 대한 여론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프레임 모형 검증연구」, 『한국언론학보』 제49권 1호, 서울, 한국언론학회, 2005.
- 정수영·유세경, 「중국과 일본의 주요 일간지에 실린 대중문화 한류관련 뉴스분석」, 『언론정보연구』 제50권 1호, 서울,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2013.
- 최수진, 「한류에 대한 미·중 언론보도 프레임 및 정서적 톤 분석」, 『한국언론학보』 제58권 2호, 2014년.
- 최운규·최용준, 「중국 3대 언론매체의 한국 관련 보도 행태 연구」, 『언론과 사회』 제21권 2호, 서울, 성곡언론문화재단, 2013.
- Bielsa, Esperanca and Susan Bassnett, 노승엽 외 역, 『글로벌 뉴스와 번역』, 서울, 도서출판 동인, 2009년.
- Katharina Reiss & Hans J Vermeer, 정혜연 역, 『일반 통번역이론의 기초』,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10.
- 吕宁, 「新闻编译中的“选择”——以《参考消息》的一篇报道为例」, 『新闻记者』 2006(10), 上海, 上海社会科学院新闻研究所, 2006.
- 刘其中, 『新闻翻译教程』, 北京, 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04.
- 徐英, 「新闻编译中意识形态的翻译转换探索」, 『中国翻译』 2014(3), 北京, 中国翻译工作者协会, 2014.

蒋晓华, 「意识形态对翻译的影响: 阐发与新思考」『中国翻译』24(3), 北京, 中国翻译工作者协会, 2003.

程维, 「跨文化传播视阈下的新闻编译—以《参考消息》防控甲流的几则新闻稿为例」『上海翻译』2010(3), 上海, 上海市科技翻译学会, 2010.

陳明瑶, 「淺論英語新聞編譯加工」, 『中国翻譯』22(5), 北京, 中国翻譯工作者協會, 2001.

바이두 백과사전 <http://www.baidu.com>

참고소식 공식홈페이지 <http://www.cankaoxiaoxi.com>

〈Abstract〉

News translation is very different from literary or technical translation. The most important feature of news translation is that the original text is rarely translated because of limitations in time or space. In many cases, news is reconstructed in a way that is suitable for readers to read and use to influence and target audience linguists, and in this process, the original text has changed.

In this study, it is assumed that this text is related to the social customs, structured values, and 'frame' setting based on the reader's perception that can be communicated in the target language. The media are physically constrained to report on the diverse and complex reality. Therefore, the frame is not a process of conveying reality as it is, but a process of acquiring the reader's perception by emphasizing, reducing, or excluding a specific part in the course of news transmission. Especially in international news related to national interests, frame is more useful.

In this study, I observed how the change of vocabulary leads to the change of frame in the news that the Chinese official media 'CANKAOXIAOXI' translated Korean news into Chinese. As a result, 'CANKAOXIAOXI' mainly used the transediting method when translating news of Korean media. The translated news mostly attempted to change the frame through the headline. And changed the frame of the translation news using 'delete', and 'display of special question or expression of negative using double quotes'.

Key Words: Chinese news, News Translation, Translated News, Edited Translation, Media Frame

이 논문은 2017년 1월 10일에 접수되어 2017년 2월 8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7년 2월 8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